

2011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좌 - 불광선원 선원장 무각 스님

내 마음 속의 성스럽고 영원한 사랑의 맛을 보라

〈그대 삶이 경전이다〉의 저자 무각 스님(불광선원·공생선원 선원장)이 10월 26일 '2011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연을 열었다. 스님은 도심에서 대중들에게 '선(禪)'을 지도하고 〈금강경〉을 강의하면서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선과 〈금강경〉의 필요성을 밝혀왔다. 스님은 이날 아부 스님의 계승과 〈금강경〉해설을 통해 본래의 불성(佛性)을 일깨워 진정한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라고 강조했다. **정리=양행선 전남지사장**

금강반야바라밀이란

〈금강경오가해〉 가운데 아부 스님의 송(頌)을 중심으로 스님의 안목을 살펴보고 고 합니다. 아부 스님의 안목에 비추어 드러난 〈금강경〉을 각자 자기의 안목으로만 들어 가는 동안, 스스로 깨달아 가는 공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인(古人)의 말씀에 "새 꽃은 옛 가지의 가지에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지혜는 앞서 행하고 가신 선배, 선지식들의 지혜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곧 앞선 선배요, 지금 후배인 것입니다. 선배와 후배가 둘이 아니고, 선배는 후배로 해서 있고 후배는 선배로 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오가해〉에서는 부처님, 수보리, 아부 스님 모두를 만납니다. 부처님과 수보리, 아부 스님과 이 경을 보는 자 모두 한집안의 한소식인 것을 알아 비로소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내가 경을 보지 않고, 경이 나를 보지 않아야 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고 했던 뜻을 조금은 간파했다 하겠습니까.

〈금강반야바라밀경〉. 이 제목 속에는 〈금강경〉의 종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금강(金剛)은 가장 단단하고 견고해서 번뇌, 망상, 고통, 업 등 모든 경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부서지지 않는 영원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금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나기 이전 고요한 그 자리를 무시 자리라하고, 무심이 곧 부처이며 금강인 것입니다.

때문에 〈금강경〉을 바쁘거나 급해서 독송을 할 수 없을 때나 또는 죽음이 임할 때, 진실로 믿고 자성의 부처를 생각만 해도 그 공덕은 한량없이 무한한 것입니다.

금강과 같은 말로는 마하가 있습니다. 마하는 크다는 뜻인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큰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 해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하를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모습·없는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마음, 마하반야바라

밀 그 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반야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밝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출렁이는 물결이 잔잔해지면 만상이 다 드러나고 비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큰 것이 오면 크게 비춰지고, 작은 것이 오면 작게 비춰지며, 붉은 것이 오면 붉게 드러나고, 검은 것이 오면 검게 드러나는 것이 반야입니다.

바라밀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언덕은 생각이 있고 고통이 있고 너와나, 율고 그름, 좋고 나쁨이 있는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저 언덕은 절대적 세계입니다. 생사도 없고 번뇌 망상도 없고, 너와나 율고 그름 좋고 나쁨도 없는 초월된 세상입니다.

그곳을 열반의 세계, 도피안이라 해서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속에는 불·법·승 삼보(三寶)가 구축하고, 법신·보신·화신 삼신(三身)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고요히 선정에 들어(금강) 한 생각 우뚝 밝아(반야) 평등하게 작용하면(바라밀) 이것이 '금강반야바라밀'인 것입니다.

부처와 중생의 경계란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 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사죄했습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아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보하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십니다."

〈금강경〉에는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과 법을 청하는 수보리, 법을 듣는 대중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처이고, 누가 수보리이며, 누가 대중일까요.

부처님과 수보리와 대중을 따로 보는 견해는 사뭇 견해입니다. 〈금강경〉의 본뜻과 한참 어긋납니다. 부처님, 수보리, 대중 모두가 이 경을 읽고 있는 그대 마음 가운데 드러난 자성의 작용임을 알아야 할 이치를 체험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부처는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나

기 이전, 법신의 자리이며 금강의 자리입니다. 수보리는 해공제일이라 공한 이치에 통달한 반야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본래 물들지 않아 청정히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수보리의 마음입니다.

대중은 자기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육도 구류중생입니다. 본래 부처인 근본에서 한 생각 밝은 반야의 마음(수보리)을 드러내면 대중이 모두 밝혀져 해탈하는 것입니다. 법신·반야·해탈 이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곧 셋이 되는 것입니다.

〈천진론〉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잘 호보하심은 근기가 성숙한 보살을 의지해 설함이니 지혜의 힘을 주어서 불법을 성취하게 하고 교화의 힘을 주어서 중생을 통솔케 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또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심은 근기가 미숙한 보살을 의지해 설함이니 혹 물러설까 두려워해 지혜로운 사람에게 붙여주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은 부서지지 않는 영원함
반야는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춤

부처님께서 호보하시고 부촉하시는 보살들 또한 이 경을 보는 사람과 둘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 속에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모두 들어 있어서, 인연 따라 번갈아가며 그 의식들이 나옵니다. 이때 근기가 성숙한 의식들 즉, 보살들이 나오면 불법을 성취하게 하고 중생을 통솔하게 합니다. 근기가 미숙한 의식들 즉, 보살들이 나오면 지혜로운 한 생각을 잘 돌려서 이끌어가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작용을 잘 하시기 때문에 여러 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찬탄한 것입니다.

근기가 성숙한 의식들만이 지혜가 아닙니다. 근기가 미숙한 의식도 우리를 밝음으로 이끌기 위해 출현합니다. 자기 마음의 금강·반야를 닦기 위해서 경계가 끝없이 출현하는 것이니 경계가 나타나면 오히려 이것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아직도 닦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닦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닦을 것이 안 오면 큰 문제입니다. 마음 거울이 더러운데 닦을 경계가 안 나오면 무엇으로 닦을 수 있겠습니까? 경계가 출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잘 오는구나"



〈그대 삶이 경전이다〉의 저자 무각 스님

하고 심고롭게 받아들여십시오. 문제는 항상 터지는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보살이요, 항상 괴로움에 쌓여 있는 사람이 중생입니다.

만물 만생이 모두 부처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늑다라 삼막삼보리심을 발하오니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받으오리까."

수보리가 "제가 (발심했으니)"라고 말하지 않고,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남자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늘의 마음입니다. 하늘이 일체를 낳게 했으면서도 스스로 내세우지 않고 무심이듯이, 본래 고요히 만법을 갖추고 능히 일체 공덕을 성취해서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는 것이 본래의 자리입니다.

선여인이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이며 대지의 마음입니다. 만물만생을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흰 것은 희게, 붉은 것은 붉게 천차만별로 응해 길러 내는 것은 스스로 지혜의 마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지

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인 육도(六道)의 마음을 바른 지혜로써 평등하게 사랑을 베풀고 제도함이 차별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의 어머니 역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 잘 성장해 성인이 되듯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성품인 선남자와 어머니의 성품인 선여인 사이에 일체 중생이 훌륭하게 커서 부처를 이루게 됩니다. 선남자인 본래 부처의 성품에 머무르고, 선여인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항복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부 선사의 송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는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고
그대는 슬퍼도 나는 슬프지 않는다.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갈 것을 생각하고
제비는 옛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다
다.
가을 달 불꽃의 무한한 뜻은
그 속에서 다만 스스로 알 뿐이로다.

'그대는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고, 나는 기쁘지 않고'는 본체 자리인 선남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은 본래부터 함께 존재하는 것이어서 인연에 의해 나누는 것 뿐입니다.

'기러기는 북쪽을, 제비는 옛집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숭상하는 모든 행위들이 본질적으로 진리를 향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모두 대광명으로부터 나와 지금 한 생각 무명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본래 고향인 광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만생은 모두 부처로 가는 구도자라고 뜻입니다.

'가을 달 불꽃의 무한한 뜻은' 가을 달과 불꽃 즉, 만물 만생이 본래 부처의 나뭇잎을 깨달으면 날마다 '그 속에서 다만 스스로 알 뿐이로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명철에 고향에 가려고 하는 행위도 다 본래 고향인 본성자리에 돌아가고자 하는 근원적인 열망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또 어떤 대상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자기가 자기 마음속의 성스럽고 영원한 사랑의 맛을 체험하는 것 또한 고아대무변한 나를 알아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짐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아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결혼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본인이 여러 신랑을 맞선을 보고 자유선택
2.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 안마사, 집안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 월 5~6백만원 수입 절대보장
3. 기술은 1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음
4. 기숙사 완비 되어 있음
5. 뜻이 있는 분 상담 받으세요
6. 불자님 절대 우대 넓은 세상을 보라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 가족 중 고택한 선남-선녀들에게 초혼·재혼자 신청하여 주시면 궁합을 보아 좋은 배필을 선정하여 맞선을 보도록 알선함. 년월일시는 음력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담당스님 만해 합장

天氣福

현재의 시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날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들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식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 / 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